

News

예금 급증한 2금융권, SVB 영향 미미할듯...연체를 우려는 지속

연합뉴스 <https://bit.ly/3yCPUvC>

국내에서도 지난해 수신 잔액이 급격히 늘어난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옴
금융당국은 SVB 사태가 2금융권에 미칠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음

ISS "행동주의펀드 JB금융지주 주주제안에 반대"

한국경제TV <https://bit.ly/3JB5vSJ>

ISS는 1주당 900원 배당과 김기석 사외이사 후보자 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표 의결을 주주들에게 권고
얼라인파트너스가 주주제안한 배당성향과 경영진 제안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회사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

카뱅, 주당 80원 첫 배당...130억원 자사주 매입

한국경제TV <https://bit.ly/3FkEtN9>

카카오뱅크가 381억원 규모의 현금 배당과 130억원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
시가배당률은 0.31%, 추가배당금률은 1.6%이며 오는 29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될 예정

은행 과점 깰 메기 'MG새마을은행' 부상... 농협처럼 1금융권 진출 방식

조선비즈 <https://bit.ly/3J8uqM6>

금융 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경분리를 통한 은행 설립 가능성 대두
MG새마을금고를 통해 상호금융업을 유지하고, 새로운 은행 설립을 통해 1금융권에 진출하는 방식

보험사 회계 변경 '시계제로'...3곳 중 1곳 "당장 못 한다"

데일리안 <https://bit.ly/3Tg3lpG>

전체 보험사 53곳 중 19곳(35.8%)이 K-ICS의 선택적 경과조치 적용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남
회계 변경의 실질적인 도입 시기가 미뤄지면서 보험업계의 체질 개선도 함께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

한국타이어, 화재로 21만개 전소... 1.7조 보험금에 손보사 촉각

뉴데일리 <https://bit.ly/3Fmzpl2>

물류동 내 40만개 중 21만개 불 타 대전공장, 하루 4만5000개 생산 차질
간사사 KB손보 6810억 부보... 삼성·DB·현대해상 20%씩, 재보험 가입 조건이 가장 큰 변수

봄바람 부는 IPO시장 상반기 8곳 신청할듯

동아일보 <https://bit.ly/426HD0a>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유가증권시장 입성을 추진하는 기업이 다시 늘어나고 있음
서울보증보험, 에코프로머티리얼즈, 후성글로벌, 넥스틸, 엔카닷컴 등이 다음 달 예비상장심사 청구 목표

'박스피' 전망 커지자... ELS로 향하는 투심 2조4000억원

조선일보 <https://bit.ly/3LhATa7>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발행된 ELS는 총 2조3928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67%나 급증
주요국 주가지수가 박스권에서 횡보하면서 ELS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